

일부지역 초등학생의 구강보건지식 및 구강보건행동에 관한 연구

김정숙 · 강은주¹ · 최미혜

청암대학 치위생과, ¹원광보건대학 치위생과

A study on oral health knowledge and oral health behavior of elementary school student in some regions

Jeong-Suk Kim · Eun-Ju Kang¹ · Mi-Hye Choi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Cheongam College University

¹*Department of Dental Hygiene,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 In order to provide basic data necessary for developing oral health education plane for school continued oral health education by understanding knowledge and activities of oral health.

Methods : This study was performed against 324 students at 5th grade of 2 elementary schools in Iksan-si, Jellabuk-do selected through convenience sampling, who were in mixed dentition period that might experience dental caries of permanent tooth.

Results : As results, For the knowledge level on oral health by questions, it was found that the case that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had correct knowledge on oral health was 'chocolates, snacks, and candies were foods that might often cause dental caries' and 95.8% of the students recognized it well. It was found that for 'must do toothbrushing before going to bed', 'during toothbrushing, I clean my tongue', and 'Proper time necessary for toothbrushing is about 3 minutes', 89.3%, 93.2%, and 89.3% of the students knew the, respectively. When oral health knowledge level by groups was divided into 3 groups and observed, they were classified into Low (0-4 points), Mid (5-7 points), and High (8-10 points). It was found that the knowledge level of each group was High 64.1%, Mid 33.9%, and Low 2.0% and it was identified that the high group took the largest ratio. It was suggested also for oral health knowledge level depending on their father's academic background tha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group higher than university graduate($p < 0.05$). It was found for oral health knowledge level depending on parents' dental condition that an answer that both parents were good was high and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ut post-analysis resulted that there was no apparent difference among groups. It was found that the ratio of respondents who answered for toothbrushing method 'toothbrush should be moved and rotated downward for the upper teeth and upward for the lower teeth to clean the teeth and gum' were 33.2% of male students and 29.4% of female students and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p < 0.05$). It was found also that the ratio of respondents who answered to use a toothbrush for about 3 months' were 29.4% of male students and 25.5% of female students and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p < 0.05$).

Conclusions : Oral health program through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ir parents for the development of proper oral health care education programs continue to be made should be considered.

(J Korean Soc Dent Hygiene 2010 ; 10(3) : 525-532)

Key words : Elementary School Student, Oral Health Behavior, Oral Health Knowledge

색인 : 초등학생, 구강보건지식, 구강보건행동

1. 서론

최근 생활수준이 향상됨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으나, 식생활의 변화로 치아우식증은 오히려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¹⁾. 치아우식증은 한 번 발생하면 저절로 치유되지 않고 계속 쌓여 가는 누적적 질환임을 고려할 때 초등학교 아동들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은 국가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대상이다²⁾. 우리나라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구강보건을 학교보건의 일부로서 관장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학교구강보건은 전체 구강보건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분야로 인정되어 왔다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12세 아동의 우식 경험 영구치 지수 조사결과 1972년 0.6개⁴⁾, 1979년 2.3개⁵⁾, 1990년 3.0개⁶⁾, 1995년 3.1개⁵⁾, 2003년에 3.25개⁶⁾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02년도 초·중등학생 신체 검사 결과, 치아우식증, 치주병 등 구강질환 환자가 59.38%로 나타나 1992년 49.44%, 1997년 44.51%에 비해 증가 추세에 있었으며 특히 초등학생의 치아우식증 환자 비율 또한 55.05%로 나타나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절반이상이 치아우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⁷⁾. 초등학교 고학년은 왕성한 성장발육과 함께 빈번한 간식 섭취 후 구강관리의 부족으로 치아우식증과 치은염이 많이 발생되기 시작함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의 구강건강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 행동을 변화시켜서 일생동안 스스로가 구강건강에 관한 능력을 배양시켜주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⁸⁾. 그러나 초등학교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스스로 자신의 구강을 관리하고 구강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⁹⁾고 알려져 있으므로 증가하는 치아우식증을 예방하여 건강한 구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강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심어주고 구강관리에 대한 행동 양상들을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시켜 줄 구강건강 관리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구강보건교육을 통하여 학생 스스로 치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식을 습득하고,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구강보건행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보건 지식과 행동을 파악하여 지속적인 학교구강보건사업 계획 시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영구치 교환 시기에 있는 혼합치열기인 12세 아동의 구강보건지식과 행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익산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중 구강보건실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2개 학교 5학년 324명을 편의 추출하여 2009년 5월 11일부터 22일까지 조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 중 설문응답이 부정확한 14부를 제외한 310부의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2 연구방법

설문지는 이¹⁰⁾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설문내용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 후 사용하였다. 설문내용은 일반적 특성 4문항, 구강보건지식 10문항, 구강보건 행동 6문항과 구강보건실 관련 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학생들의 구강보건지식과 구강보건 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t-test 그리고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유의수준은 0.05로 고려하였다.

3. 연구성적

3.1. 일반적 특성

이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남학생 54.2%, 여학생 45.8%로였고, 아버지 학력에서는 대학교 졸업 이상 68.6%, 고등학교 졸업 28.2%, 중학교 졸업 3.2%임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 학력에서는 대학교 졸업 이상 62.8%, 고등학교 졸업 34.3%, 중학교 졸업 2.9%순임을 알 수 있었다. 치아 자각상태에서는 두 분 다 좋다 53.4%가 가장 많았고, 잘모르겠다 18.1%, 어머니만 좋다 14.2%, 아버지만 좋다 9.1%, 두 분 다 나쁘다가 5.2% 순임을 알 수 있다(표 1).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성 별	남	168	54.2
	여	142	45.8
아버지 학력	중학교 졸업	10	3.2
	고등학교 졸업	87	28.2
	대학교 졸업이상	213	68.6
어머니 학력	중학교 졸업	9	2.9
	고등학교 졸업	106	34.3
	대학교 졸업이상	195	62.8
치아자각상태	아버지만 좋다	28	9.1
	어머니만 좋다	44	14.2
	두분 다 좋다	166	53.4
	두분 다 나쁘다	16	5.2
	잘 모르겠다	57	18.1

표 2. 문항별 구강보건지식 수준

단위: 명(%)

문항	정답자	오답자	계
1. 1회의 칫솔질 시간은 3분정도가 적당하다.	275 (89.3)	37 (10.7)	310 (100)
2. 불소는 충치예방에 도움이 된다.	144 (46.8)	164 (53.2)	310 (100)
3.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칫솔질을 해야 한다.	285 (92.5)	25 (7.5)	310 (100)
4. 초콜렛, 과자, 사탕 등은 충치를 잘 발생시키는 음식이다.	295 (95.8)	15 (4.2)	310 (100)
5. 과일, 우유, 채소 등은 치아를 청결히 하는 음식이다.	204 (66.2)	106 (34.8)	310 (100)
6. 치아가 부러졌을 때는 부러진 치아를 가지고 치과에 가야 한다.	216 (70.1)	94 (29.9)	310 (100)
7. 충치와 잇몸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칫솔질이다.	222 (72.1)	88 (27.9)	310 (100)
8. 엄지손가락을 빠는 행위는 치아나 턱의 모양을 바르지 않게 한다	223 (72.4)	87 (27.6)	310 (100)
9. 정기적인 치과방문 시기는 1년에 1회 이상이다.	127 (41.2)	183 (58.8)	310 (100)
10. 칫솔질을 할 때 혀도 닦는다.	287 (93.2)	23 (6.8)	310 (100)

3.2. 구강보건지식

문항별 구강보건지식 수준은 초등학교생들이 올바른 구강보건지식을 가지고 있던 경우는 '초콜렛, 과자, 사

탕 등은 충치를 잘 발생시키는 음식이다.'였으며 95.8%의 학생이 인식하고 있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칫솔질을 해야 한다.' 89.3%, '칫솔질을 할 때 혀도

닦는다.’는 93.2%였고, ‘1회의 칫솔질 시간은 3분정도가 적당하다.’는 89.3%의 학생이 알고 있었다. ‘정기적인 치과방문 시기는 1년에 1회 이상이다.’는 41.2%의 학생만이 알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표 2).

구강보건지식 수준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하(0~4점), 중(5~7점), 상(8~10점)으로 구분하였으며, 지식수준은 상 64.1%, 중 33.9%, 하 2.0% 그룹 순으로 상그룹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성별에 따른 구강보건지식 수준을 보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아버지 학력에 따른 구강보건지식 수준을 보면 대학교졸업이상이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p < .05$). 어머니 학력에 따른 구강보건지식 수준을 보면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치아 자각상태에 따른 구강보건 지식수준을 보면 두분 다 좋다가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p < .05$)(표 4).

표 3. 그룹별 구강보건지식수준

구분	명	백분율
하(0~4점)그룹	6	2.0
중(5~7점)그룹	105	33.9
상(8~10점)그룹	199	64.1
합계	310	100.0

단위: 명(%)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지식 수준 정도

구분	M	SD	t(F)	p	
성 별	남	8.92	2.23	.032	.580
	여	9.06	2.16		
아버지 학 력	중학교 졸업	8.5	1.31	.117	.040*
	고등학교 졸업	8.55	2.42		
	대학교 졸업이상	9.15	2.11		
어머니 학 력	중학교 졸업	9.00	1.41	.095	.097
	고등학교 졸업	8.68	2.19		
	대학교 졸업이상	9.15	2.18		
치아자각상태	아버지만 좋다	9.03	2.19	-.142	.012*
	어머니만 좋다	9.11	2.30		
	두분 다 좋다	9.28	2.10		
	두분 다 나쁘다	8.76	1.64		
	잘모르겠다	8.16	2.34		

* $p < 0.05$

*사후검증은 Duncan의 방법 이용

3.3. 성별에 따른 구강보건행동

성별에 따른 구강보건 행동을 살펴보면, 잇솔질 방법은 ‘윗니는 위에서 아래로, 아랫니는 아래에서 위로 칫솔을 회전시키며 치아와 잇몸을 닦는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남학생 33.2%, 여학생 29.4%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칫솔사용기간은 3개월 정도가 남학생 29.4%, 여학생 25.5%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치실사용여부를 묻는 질문에 ‘사용 안 한다’라고 응답한 남학생이 40.3%, 여학생 36.8%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표 5).

3.4. 구강보건실 설치 및 운영 관심도에 따른 구강보건지식 수준

구강보건실 설치 및 운영 관심도에 따른 구강보건지식 수준을 살펴보면, 구강 보건실 설치 필요성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구강보건실 설치 필요하다고 생

표 5. 성별에 따른 구강보건행동

단위 : 명(%)

구분	구강건강관리실태			p
	남	여	전체	
칫솔질 횟수				
안한다	3(1.8)	0(0)	3(1.0)	.141
1번	8(4.8)	4(2.9)	12(3.9)	
2번	81(48.2)	54(38.0)	135(43.5)	
3번	63(37.5)	76(53.5)	139(44.8)	
4번이상	13(7.7)	8(5.6)	21(6.8)	
	168(100)	142(100)	310(100)	
칫솔질 시간				
30초이내	7(4.2)	4(2.8)	11(3.5)	.236
1분이내	29(17.3)	5(3.5)	32(11.0)	
2분이내	45(26.8)	48(33.8)	93(30.2)	
3분이내	77(45.8)	47(33.1)	124(40.2)	
3분이상	20(11.9)	38(26.8)	58(18.1)	
	168(100)	142(100)	310(100)	
칫솔질 방법				
치아를 옆으로만 닦는다	18(10.7)	8(5.6)	26(8.4)	.017*
치아를 위아래로만 닦는다	13(7.8)	10(7.0)	23(7.4)	
치아를 원을 그리며 닦는다	19(11.3)	23(16.3)	42(12.6)	
윗니는 위에서 아래로, 아랫니는 아래에서 위로 칫솔을 회전시키며 치아와 잇몸을 닦는다	103(61.3)	91(64.1)	194(62.6)	
치아를 마음 내키는대로 아무렇게나 닦는다	15(8.9)	10(7.0)	25(8.0)	
	168(100)	142(100)	310(100)	
칫솔 사용 기간				
3개월 정도	91(54.2)	79(55.6)	170(54.8)	.030*
6개월 정도	39(23.2)	46(32.4)	85(27.4)	
9개월 정도	25(14.8)	12(8.4)	37(12.0)	
1년 이상	10(6.0)	4(2.8)	14(4.5)	
2년 이상	3(1.8)	1(0.0)	4(1.3)	
	168(100)	142(100)	310(100)	
사용하고 있는 칫솔모 모양				
머리가 아주 작으며 손잡이가 곧은 칫솔	36(21.4)	12(8.5)	48(15.4)	.051
머리가 아주 작으며 손잡이가 구부러진 칫솔	11(6.5)	17(12.0)	28(9.0)	
동시에 여러 치아를 닦을 수 있을 만큼 머리가 크고 손잡이가 곧은 칫솔	25(14.9)	25(17.6)	50(16.2)	
구강내 모든 부위에 닿을 수 있을 만큼 머리가 중간크기이고 손잡이 가 곧은 칫솔	89(53.0)	69(48.5)	158(51.0)	
구강내 모든 부위에 닿을 수 있는 만큼 머리가 중간크기이고 손잡이 가 구부러진 칫솔	7(4.2)	19(13.4)	26(8.4)	
	168(100)	142(100)	310(100)	
치실사용 여부				
매일 식후	13(7.7)	5(3.5)	18(5.8)	.035*
하루에 한번	14(8.3)	9(6.3)	23(7.4)	
일주일에 1-2번	8(4.8)	7(4.9)	15(4.8)	
일주일에 3-4번	8(4.8)	7(4.9)	15(4.8)	
사용안한다	125(74.4)	114(80.4)	239(77.2)	
	168(54.2)	142(100)	310(100)	

*p<0.05

표 6. 구강보건지식 수준 정도에 따른 구강보건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관심도

구 분		M	SD	t(F)	p
구강보건실 설 치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9.08	2.18	1.787	.089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8.60	2.20		
구강건강 지도 선생님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9.31	2.12	1.408	.202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9.19	2.09		

각 한다'(9.08)가 '구강보건실 설치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8.60)보다 구강보건지식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구강건강 지도 선생님의 필요성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표 6).

4. 총괄 및 고안

치아의 중요성은 성인보다 어린이에 있어서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어린이 치아는 성장과 발육에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는 소화의 첫 단계이며 둘째, 어린이 치아는 영구치의 정상적 성장을 위한 안내자이며 셋째, 어린이 치아는 발음을 배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넷째, 치아는 상, 하악골 발육에 촉진인자로 작용한다. 다섯째, 어린이 치아는 어린 시절 성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¹¹⁾. 초등학교 학령기는 유치가 영구치로 교환되는 시기이며, 치아 우식증이 가장 빈발하는 시기이므로 구강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이다. 치아우식증은 우리나라 구강병 중 특히 아동기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므로 구강 관리에 대한 인식이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의 영구치 우식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구강건강을 위해서 일정한 주기로 구강병 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구강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구강보건지식과 구강보건행동을 파악하여 지속적인 구강관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구강보건지식 수준은 초등학생들이 올바른 구강보건지식을 가지고 있던 경우는 '초코렛, 과자, 사탕 등은 충치를 잘 발생시키는 음식이다.'였으며 95.8%의 학생이 인식하고 있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칫솔질을 해야 한다.' 89.3%, '칫솔질을 할 때 혀도 닦는다.'는 93.2%였고, '1회의 칫솔질 시간은 3분정도가 적당

하다.'는 89.3%의 학생이 알고 있었다. '정기적인 치과 방문 시기는 1년에 1회 이상이다.'는 41.2%의 학생만이 알고 있어 정확한 구강보건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학생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대상자의 구강보건 지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생들의 구강보건지식수준은 상 64.1%, 중 33.9%, 하 2.0% 그룹 순으로 상 그룹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김 등¹²⁾과 장과 송¹³⁾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기적인 구강보건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초등학교가 많아져 이전보다 학생들의 구강보건지식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학생들의 구강보건 행동으로서 하루 칫솔질 횟수는 '1회' 12명(9.2%), '2회' 135명(43.5%), '3회' 139명(44.8%), '4회 이상' 21명(6.8%)로 하루 3회가 가장 많았으나, 성별에서 남학생의 경우 '1회' 8명(4.8%), '2회' 81명(48.2%), '3회' 63명(37.5%), '4회 이상' 13명(7.7%)로 하루 2회가 가장 많이 나타나 김 등¹⁴⁾의 연구에서 43.8%와 이와 이¹⁵⁾의 연구에서 59.2%로 나타났으며, 최¹⁶⁾의 연구와 Rajab¹⁷⁾의 연구에서도 하루 2회가 가장 많은 것으로 결과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구강보건 행동을 살펴보면, 잇솔질 방법은 '윗니는 위에서 아래로, 아랫니는 아래에서 위로 칫솔을 회전시키며 치아와 잇몸을 닦는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남학생 33.2%, 여학생 29.4%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칫솔사용기간은 3개월 정도가 남학생 29.4%, 여학생 25.5%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치실사용여부를 묻는 질문에 '사용 안한다'라고 응답한 남학생이 40.3%, 여학생 36.8%로 높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학생들에게 구강보조용품의 사용 용도와 사용 방법에 대한 구강보건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구강보건실 설치 및 운영 관심도에 따른 구강보건지식 수준을 살펴보면, 구강 보건실 설치 필요성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구강보건실 설치 필요하다고 생각한다’(9.08)가 ‘구강보건실 설치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8.60)보다 구강보건지식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구강건강 지도 선생님의 필요성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학교보건사업의 일환으로 구강보건사업이 실시되어 운영되지만, 선진국형 사회보장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는 호주, 영국, 스위스, 스웨덴 등지의 유럽과 오세아니아주 국가와 같이 각 학교마다 학교 구강보건실이 설치되어 있는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시 단위 학생 수 400명 이상, 구·군 단위는 200명 이상이 되었을 때 보건소에서 구강보건 인력이 출장하는 형태로 운영¹⁸⁾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구강건강지도 교사의 인지도를 위한 방안 모색과 초등학교 구강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위해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구강보건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일부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으며, 지속적인 학교구강보건 사업을 통하여 초등학교 학부모에게 구강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구강건강 관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구강보건 지식과 행동을 파악하여 학교구강보건사업의 계획 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전라북도 익산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중 2개 학교를 편의 추출하여 영구치 우식을 경험할 수 있는 혼합치열기인 5학년 324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문항별 구강보건지식 수준은 초등학교생들이 올바른 구강보건지식을 가지고 있던 경우는 ‘초코렛, 과자, 사탕 등은 충치를 잘 발생시키는 음식이다.’였으며 95.8%의 학생이 인식하고 있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칫솔질을 해야 한다.’ 89.3%, ‘칫솔질을 할 때 혀도 닦는다.’는 93.2%였고, ‘1회의 칫솔질 시간은 3분정도가 적당하다.’는 89.3%의 학생이 알고 있었다.
2. 구강보건지식 수준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 하(0~4점), 중(5~7점), 상(8~10점)으로 구분하였으며, 지식수준은 상 64.1%, 중 33.9%, 하 2.0%이었으며, 상 그룹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아버지 학력에 따른 구강보건지식 수준을 보면 대학교 졸업이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p < .05$).
 4. 치아 자각상태에 따른 구강보건 지식수준을 보면 두 분다 좋다가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사후 분석 확인 결과 그룹 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p < .05$).
 5. 잇솔질 방법은 ‘윗니는 위에서 아래로, 아랫니는 아래에서 위로 칫솔을 회전시키며 치아와 잇몸을 닦는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남학생 33.2%, 여학생 29.4%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5$).
 6. 칫솔사용기간은 3개월정도가 남학생 29.4%, 여학생 25.5%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참고문헌

1. 김혜경.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에 관련된 요인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2. 광정민. 학부모의 학교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지식수준과 습득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3. 김종배, 최유진, 문혁수 외 4인. 공중구강보건학. 재개정판. 서울:고문사. 2004:224-228.
4. 한국구강보건협회. 한국인 구강질환에 대한 역사조사보고. 서울:한국구강보건협회. 1972:38.
5. 정석순, 이홍수. 대전시 일부학부형의 학교구강검진에 대한 의식실태.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6;30(2):117-129.
6. 마재경 외 4인.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구강건강증진 사례 분석.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5;29(1):77-86.
7. 교육인적자원부. 2002년도 학생신체검사 결과. 2003.
8. 김주환, 김종배, 최유진, 김종열. 구강보건학. 고문사. 서울 1983:23(1).
9. 전현자. 구강보건관리에 따른 초등학생의 구강보건지식도와 관리능력의 변화.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10. 이혜경. 초등학생들의 구강보건지식 수준이 구강보건행동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11. 장시덕. 구강보건 관리에 따른 초등학생의 치아우식증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12. 김정술, 최성숙, 이정화, 장분자. 초등학교 저학년의 구강보건지식과 어머니들의 사회인구학적 요인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한국위생과학회지. 2005;11(1):91-101.
13. 장분자, 송경희. 초등학생의 구강보건지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치위생과학회. 2006;6(3):201-206.
14. 김영희, 송근배, 이성국. 어머니의 구강보건지식 및 행동과 초등학생의 구강보건행태.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002;15(2):83-92.
15. 이춘선, 이선미. 일부 초등학생의 치아우식경험과 구강보건실태 및 구강보건지식정도에 관한 연구. 동남보건대학논문집 2003;21(1):123-131.
16. 최규범. 부모의 구강보건지식과 행동이 초등학생의 구강보건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7. Rajab LD, Petersen PE, Bakaeen G, Hamdan MA. Oral health behaviour of schoolchildren and parents in Jordan. Int J Paediatr Dent 2002;12(3):168-176.
18. 서은주. 광주광역시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이 학생들의 구강건강증진에 미치는 효과. 조선대학교 치의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4.